



INSURING OUR FUTURE

**Korea
Scorecard 2022**

March 2023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 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ACF, RE100, 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www.yangyi.kr

양이원영 의원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구책임위원직을 겸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실은 본 보고서의 토대가 되는 공적·민간 손해보험사의 화석연료금융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제공했다.

발간정보

제목	Korea Scorecard 2022
발간일	2023년 3월 28일
보고서 작성·편집	김정석 김민아 정유민
디자인·제작	좋은PR소아
공동 발간기관	Insure Our Future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Contents

About Scorecard

- Insure Our Future Global Scorecard ····· [04](#)
- Korea Scorecard 2022 ····· [05](#)

기후변화와 손해보험산업


- 기후변화와 손해보험산업 ····· [07](#)
- 손해보험산업과 화석연료 ····· [08](#)

Korea Scorecard 2022

- Scorecard 방법론 ····· [10](#)
- Score Grid ····· [12](#)
- 국내 손해보험사 화석연료 금융 지원 현황 ····· [13](#)
- 탈화석연료 ····· [16](#)

변화의 시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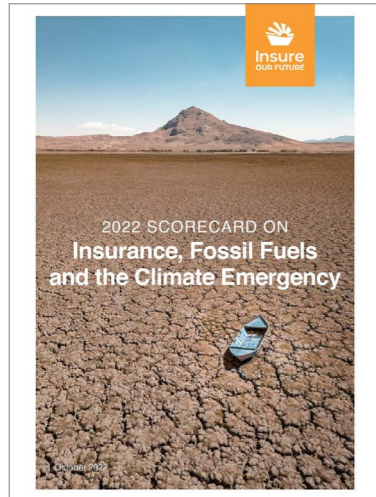
- 탈석탄을 넘어 ····· [19](#)



보험사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 Korea Scorecard 2022 본문 中 -

About
Scorecard

Insure Our Future Global Scorecard



전 세계 30개 리딩^{Leading} 보험사를 대상으로 탈화석연료를 위한 언더라이팅과 투자 부문의 정책을 다룬다.

Insure Our Future Global Scorecard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보험 산업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Insure Our Future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전 세계 30개 주요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를 대상으로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언더라이팅 및 투자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 한다. 지난해 6번째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험사들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운영에 대한 지원을 1.5°C 기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평가는 각 보험사가 설문에 응답한 답변 및 공개된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언더라이팅	투자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정책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의 언더라이팅 배제 보유중인 화석연료 관련 보험의 단계적 축소 계획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및 관련 기업의 투자 배제 문항 보유중인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산의 단계적 축소 계획
접근법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와 보험 사업의 부합 여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와 투자 사업의 부합 여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

평가 방법론

- 각 카테고리의 세부 문항별 배점이 정해져 있으며, 응답 여부에 따라 점수 획득
- 화석연료 정책에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
- 각 보험사가 답변과 함께 제시한 근거자료와 공개된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
- 각 문항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언더라이팅·투자 부문별 순위 선정
-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기
- [Global Scorecard 전체 문항 및 배점은 Insure our futur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Korea Scorecard 2022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이 석탄의 경우 9.5%, 석유 8.5%, 천연가스는 3.4%를 매년 감소해야 한다.”¹

2020년 한국석탄금융백서가 발간되고 현재 국내 금융기관 105개 사(2022년 11월 기준)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말 기준 2021년 대비 국내 석탄 금융 잔액은 약 1% 정도가 감소했다.² 또한, 민간 금융 섹터 가운데 보험산업의 석탄 관련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² 특히 국내 손해보험사의 전체 화석연료 금융 지원 금액의 85.9%는 보험 제공을 통한 부모 금액이었다.

석탄 발전소 등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이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기 위해서는 건설, 운영 보험 등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즉, 보험사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업과 손해보험산업 그리고 기후변화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기후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한 손해보험산업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019년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Korea Scorecard 2022에 응답한 9개 손해보험사 모두 탈석탄 선언을 하였고, 신규 석탄 프로젝트의 보험 인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프로젝트 제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 보유중인 언더라이팅·투자 자산에 대한 단계적 축소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석탄과 더불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기후변화 이슈는 석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선언한 내용 또한 석탄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Korea Scorecard 2022를 통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석탄 그리고 석유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언더라이팅·투자 정책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Dr Sven Teske & Dr Sarah Niklas \(2021\), Fossil Fuel Exit Strategy, 6p](#)
2. [2022 화석연료 금융 백서 1차 보고서](#)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넷제로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산업입니다.”

Selwin Hart
UN Assistant Secretary-General for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손해보험산업

기후변화와 손해보험산업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발생한
전 세계 보험 손실액



최근 들어 태풍,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1979년에 711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반면 2010-2019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3,165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액의 규모는 1970년대 1,754억 달러에서 1조 3,810억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¹

기후변화가 손해보험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손해액 증가이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로 발생한 전 세계 보험 손실액은 197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1,010억 달러로 약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향후 보험사 사업전략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규모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다.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 1,488대, 추정 손해액만 1,62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피해는 원수 보험사의 대규모 피해를 담보하는 재보험사로도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재보험사의 손해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3% 감소했다. 코리안리는 프랑스 우박, 유럽 폭풍, 남아공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수재 실적 부진을 당기순이익의 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계는 증가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1.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 [Swiss Re - sigma explorer](#)



손해보험산업과 화석연료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사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 Thomas Buberl(AXA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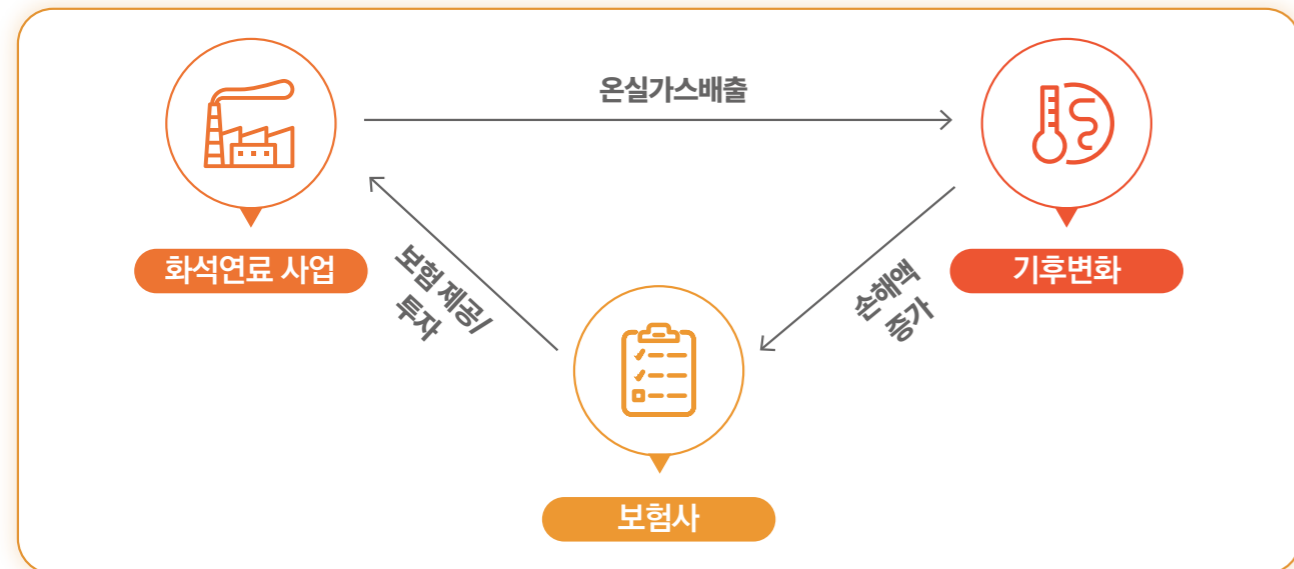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그에 따른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¹ 그리고 화석연료 기반 유틸리티 산업과 에너지 산업군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²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³ 그러나 화석연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은 향후 2년간 역대 최대치에 도달하고, 석유 생산량은 5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 발전소, 화석연료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정유산업 등 대규모 산업시설은 건설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 필요하다. 반대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보험 가입을 통해 건설 및 운영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면 모든 투자자는 투자를 보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즉, 손해보험산업은 언더라이팅 전략을 통해 신규 화석연료 사업을 제한하여 화석연료 생산 증가 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 손해보험 산업은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고 보험을 인수하여 수익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 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 자연재해 증가 ▶ 보험사 손해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화석연료 관련 자산은 과거와 달리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 보험 산업은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증가하는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투자 사업 전략을 연계하여, 기존 화석연료와 연관된 보험 및 투자를 줄이고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Environmental Research](#)
2.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2](#)
3. [IPCC Global Warming of 1.5°C SR](#)



Korea Scorecard 2022

Scorecard 방법론

조사 대상

- 국내 공적, 민간금융 전수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되, 해당 설문에는 손해보험사만 응답하도록 안내

조사 방법

- 공적 금융기관: 양의원영 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 부처에 설문지 발송
- 민간 금융기관: 양의원영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자료 취합

응답 손해보험사

-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코리안리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언더라이팅		투자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정책	화석연료 정책	화석연료(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관련 제한 정책 여부 확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 관련 활동 중단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및 관련 계획이 있는 기업 보험 인수 중단 여부		화석연료 관련 신규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 투자 배제 여부	
	단계적 축소	완전한 탈화석연료와 구체적인 일정 여부			
	비전통적 석유 및 천연가스	-	비전통적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보장 중단 여부	-	비전통적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투자 배제 여부
접근법	투자 배제	-		투자 배제 기준 및 계획 여부	
	기후선언	해당 정책의 파리기후협정 1.5°C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부합 여부			
	인게이지먼트	보유 자산에 대한 화석연료회사 인게이지먼트 정책 여부			

정책

화석연료 정책

- 언더라이팅 및 투자에 대해 화석연료와 관련된 제한 정책과 해당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는 예외 사항 여부를 묻는다.

신규 화석연료 사업 관련 활동 중단

- 언더라이팅 파트는 화석연료 관련 신규 프로젝트 자체의 보장 중단과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의 보장 중단 모두에 대해 조사하였고, 투자 파트의 경우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조사했다.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장 및 투자 중단의 경우 기존 보험 가입 및 투자분도 포함한다.

단계적 폐지

- 화석연료 관련 정책이 산업화 이후 1.5°C 온도 상승 제한 시나리오와 부합하는지 묻는다. 또한 이를 위한 완전한 탈화석연료 계획 포함 여부, 그리고 그와 연계한 화석연료 관련 제한 정책 강화 계획 및 인게이지먼트 정책에 관해 묻는다.

비전통적 석유 및 천연가스

- 석유 및 천연가스 파트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다. 북극, 셰일(Shale), 초심해(Ultra-deep water), 타르샌드(Tar Sand) 부문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의 보장 및 투자 중단 여부를 묻는다.

접근법

투자 배제

- 투자 파트에만 해당하는 질문이다. 화석연료와 관련하여 투자 배제 정책 여부와 투자 배제/철회 일정,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자산 유형과 그 비율을 묻는다.

기후선언

- 파리협정의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 1.5°C 제한 목표와 보험 인수 및 투자 사업 연계 여부를 묻는다.

인게이지먼트

- 보장 및 투자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화석연료 공급 프로젝트 중단 및 화석연료 생산 점진적 감소 요구 여부와 해당 인게이지먼트 정책 적용 수준을 묻는다.

Scorecard 점수 산정 방법

- 점수 산정: 보험사의 응답에 따라 설문지 시트에 나와 있는 배점을 토대로 산정.
- 예외 여부 감점: '예외 없음' 문항의 경우 '예' 혹은 '해당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첨부, 혹은 공개한 자료에서 예외 사항이 발견되면 감점.
- 설문지 문항에 정확한 시점(ex. 2030, 2050)과 '산업화 이후 온도 상승 1.5°C 제한'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지 않는 응답은 무효 처리.
- 투자 파트: 대부분 Scope 3 category 15 Investment와 연관된 문항이므로 Scope 1, 2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응답은 무효 처리.
- 파트별 점수 및 총점은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총점의 경우 해당 파트의 정책 및 접근법 점수를 총 합산하여 10점 만점 환산.

※ 본 보고서에 설문지 내 기후리더십 파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Score Grid

	언더라이팅						투자	
	총합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총합	
	점수/10	순위	점수/10	순위	점수/10	순위	점수/10	순위
롯데손해보험	3.0	1	7.0	1	0.0	2	0.0	8
한화손해보험	3.0	1	7.0	1	0.0	2	3.1	1
삼성화재해상보험	2.4	3	3.5	4	2.3	1	2.0	4
흥국화재해상보험	1.7	4	4.0	3	0.0	2	1.4	5
현대해상화재보험	1.3	5	3.0	5	0.0	2	1.2	7
DB손해보험	0.9	6	2.0	6	0.0	2	1.4	5
KB손해보험	0.9	6	2.0	6	0.0	2	3.1	1
SGI서울보증보험	0.9	6	2.0	6	0.0	2	3.1	1
코리안리재보험 ¹	0.0	9	0.0	9	0.0	2	0.0	8

0 - 1.4 1.5 - 3.4 3.5 - 10

Figure 1. 화석연료 금융지원 부보 잔액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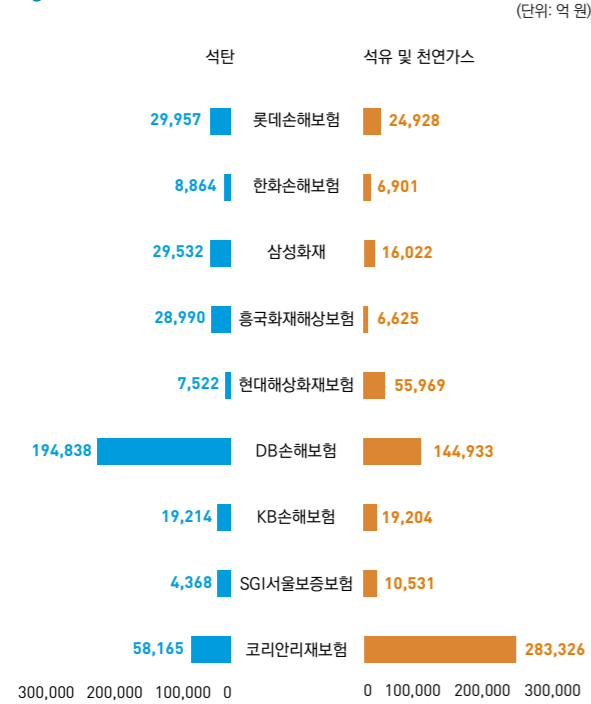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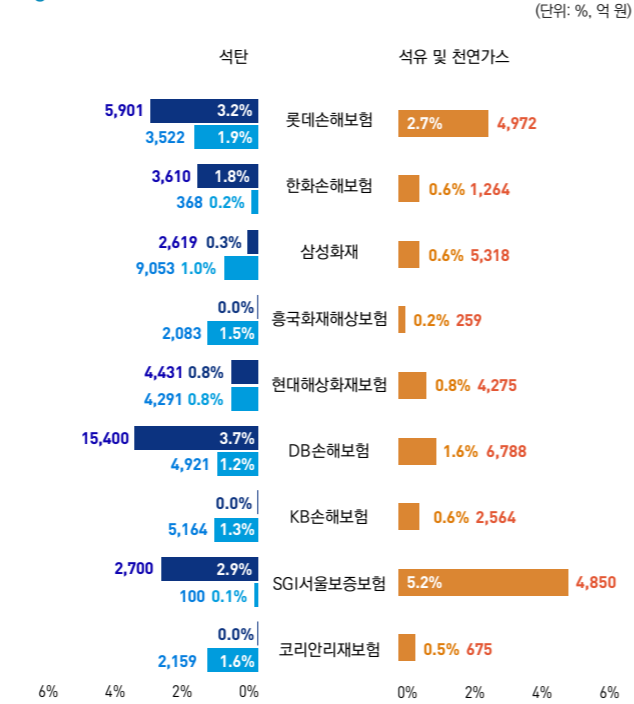


Figure 2. 화석연료 금융지원 투자 잔액 비중³



* 데이터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2022 금융기관 화석연료 금융지원 현황 전수조사

■ 한국전력·한국전력 자회사 회사채 ■ 석탄 투자 ■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

1. 코리안리재보험의 경우 2022년 11월 탈석탄 금융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표의 점수는 2022년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2023년 3월 정책 반영 점수는 언더라이팅 총점 0.6/10점, 투자 총점 1.2/10점이다.
2. 보증보험, 건설보험, 운영보험(2022년 6월 말 기준) 부보 금액 합계. 범례 순서는 언더라이팅 총점 순위 순.
3. 2022년 6월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대비 화석연료 금융지원 잔액 비중. 대출, 회사채 투자, 지분 투자 평가 잔액 합산. 범례 순서는 언더라이팅 총점 순위 순.

국내 손해보험사 화석연료 금융 지원 현황

언더라이팅 정책과 보험사별 근거 수준

스코어카드는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언더라이팅 및 투자 정책과 접근법을 살펴보고 이를 점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코어카드 설문지는 크게 보험사의 보험 계약 인수 결정을 뜻하는 '언더라이팅^{보험인수}'과 투자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 각 두 파트에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보험사의 정책과 언더라이팅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접근법을 조사한다. 스코어카드 점수는 보험사의 응답과 근거 및 관련 공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산정했다.

스코어카드 점수와 순위가 해당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성과를 100% 반영하고 있지 않다. Figure 1, 2는 스코어카드 설문지 외, '2022 금융기관 화석연료 금융지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한 국내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화석연료 금융지원 현황을 나타낸다.

보험사별 언더라이팅 점수와 근거 수준²

9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총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1.5점(석탄 3.4점, 석유 및 천연가스 0.3점)에 불과했다. 모든 보험사가 석탄 관련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은 있었으나 대부분 강력하지 않은 정책이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곳은 6곳이었다. 국내 손해보험사 중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1개사이다. 2022년 6월 말 기준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부보 잔액 합계는 56.8조 원³으로 석탄 부보 잔액인 38.1조 원³의 약 1.5배의 금액이다.

언더라이팅 파트에서 상위의 점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신규 석탄 채굴, 발전 및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장과 신규 석탄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의 보장 모두 중단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석탄 발전 중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석탄을 넘어서」의 홈페이지에 '신규 보험 인수 전면 중단' 표시가 되어있는 것 외에 해당 응답에 대한 공개 근거자료는 없었다. 한화손해보험은 근거로 탈석탄 금융 선언문 내용과 '석탄 관련 물건 인수 검토 프로세스'가 기재되어 있는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앞선 두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신규 석탄 프로젝트 및 기업 보장을 모두 중단한다고 응답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해 관련 제한 정책이 있다고 했지만, 해당 정책의 예외 사항이 있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정책서 내 '석탄 언더라이팅 정책'과 '책임투자 정책'은 적용 대상 및 내용과 예외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평균 점수를 받은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신규 석탄 프로젝트는 보장 중단한다고 응답했지만,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의 보장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근거자료로는 탈석탄 금융 선언문을 제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신규 석탄 채굴,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보장은 중단한다고 했으나 석탄 기반 시설 및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장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근거자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의 'ESG 언더라이팅'과 '책임투자 프로세스'를 제출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신규 석탄 프로젝트 보장은 중단한다고 응답했지만, 신규 석탄 계획이 있는 기업의 보장에 대한 중단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근거자료 및 공개 자료에 예외 사항이 있었다. 근거자료로 KB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 선언문'을, DB손해보험은 「석탄을 넘어서」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인수 중단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를 제출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 보장만 중단한다고 응답했으며 탈석탄 금융 선언 보도자료와 ESG 경영 전략 자료를 제출했으나, 해당 ESG 경영 전략 자료는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다.

코리안리재보험은 2022년 정책을 기준으로 화석연료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고 답변했으나 2022년 11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으며 2023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코리안리재보험의 탈석탄 금융 선언문 내에는 예외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1. 2022년 Scorecard 설문지에 응답한 9개의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만을 뜻한다.
2. 신규 석탄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 보장 중단 대상 기업에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보장하던 기업 포함.
3. 2022년 6월 말 기준 부보 및 투자 잔액 합계.

손해보험사의 탈석탄 선언과 화석연료 투자¹

보험사별 투자 점수

9개 손해보험사의 화석연료 투자 정책 평균 점수는 1.7점이었다. 석탄 투자 제한의 경우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한 8개 보험사가 관련 정책이 있다고 응답했다.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정책은 1개 사에서 비전통부문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 유일하다.

투자 파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SGI서울보증보험은 모두 신규 석탄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 투자를 배제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화재는 신규 석탄 기업 배제와 함께 비전통적 부문의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도 배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해당 정책에 예외 사항이 있었다.

흥국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 투자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도 앞선 두 보험사와 동일하게 응답했으나 해당 정책의 예외 사항이 있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2022년 정책 기준 석탄 관련 투자 제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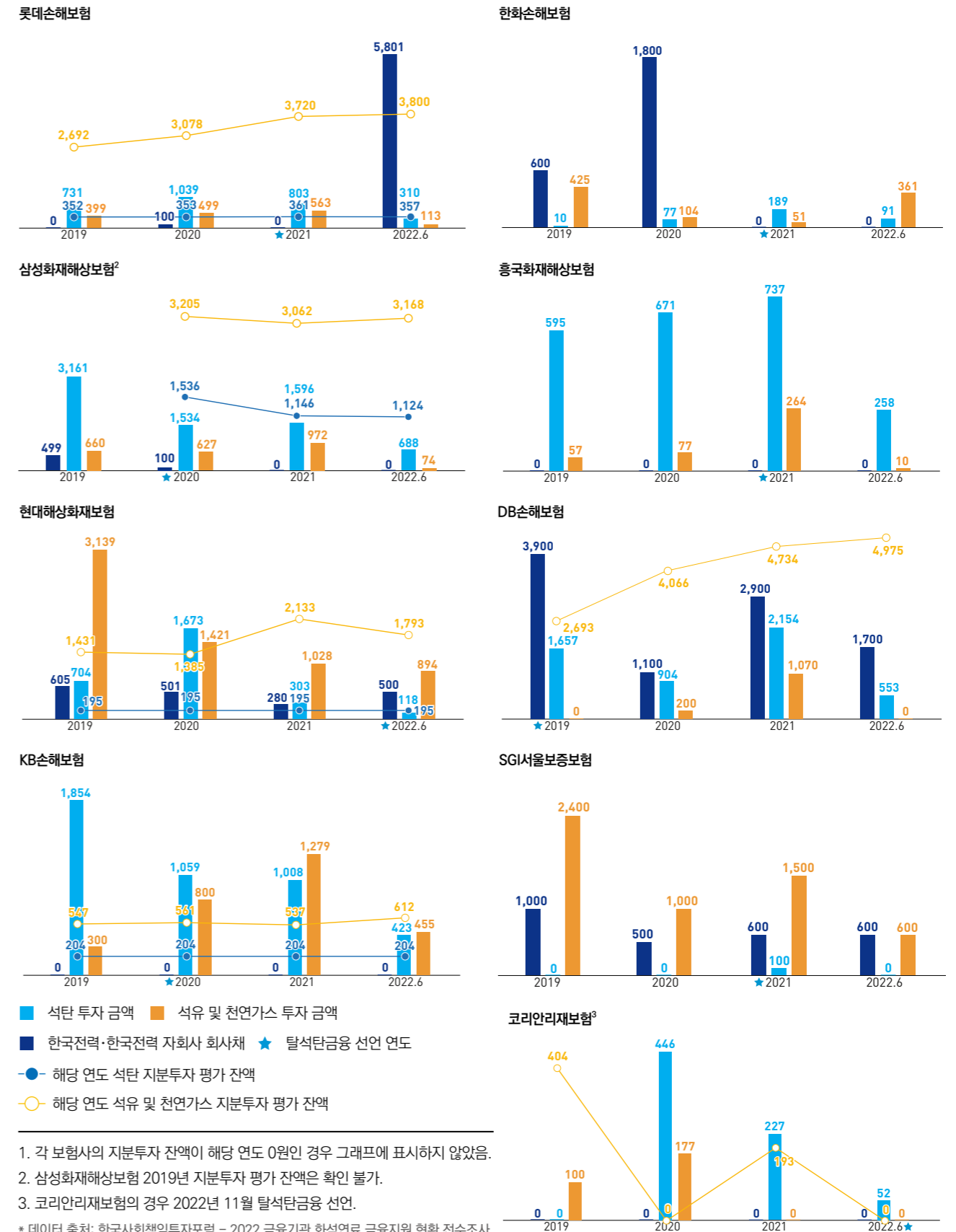
탈석탄 선언과 신규 석탄 투자

2019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의 화석연료 신규 투자 추이를 보면 탈석탄 선언 연도 이후 석탄 신규 투자가 줄어든 곳은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SGI서울보증보험 5개 사이다. 2022년에 탈석탄 선언을 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코리안리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는 투자액이 감소하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분투자액 변동은 없으나, 2022년 5,8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 회사채 신규 투자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은 2019년 탈석탄 선언 후 2020년 신규 투자액이 2천억 원대로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5천억 원대로 증가했으며 그중 2,900억 원이 한국전력 회사채 투자였다.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

화석연료 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있어서의 금융 지원 감소 및 제한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투자 제한 정책은 9개 보험사 모두 없다고 응답했다. 투자 잔액 합계의 경우 석탄 6.6조 원, 석유 및 천연가스 3.1조 원이었다.

Figure 3. 연도별 화석연료 금융지원 투자 추이¹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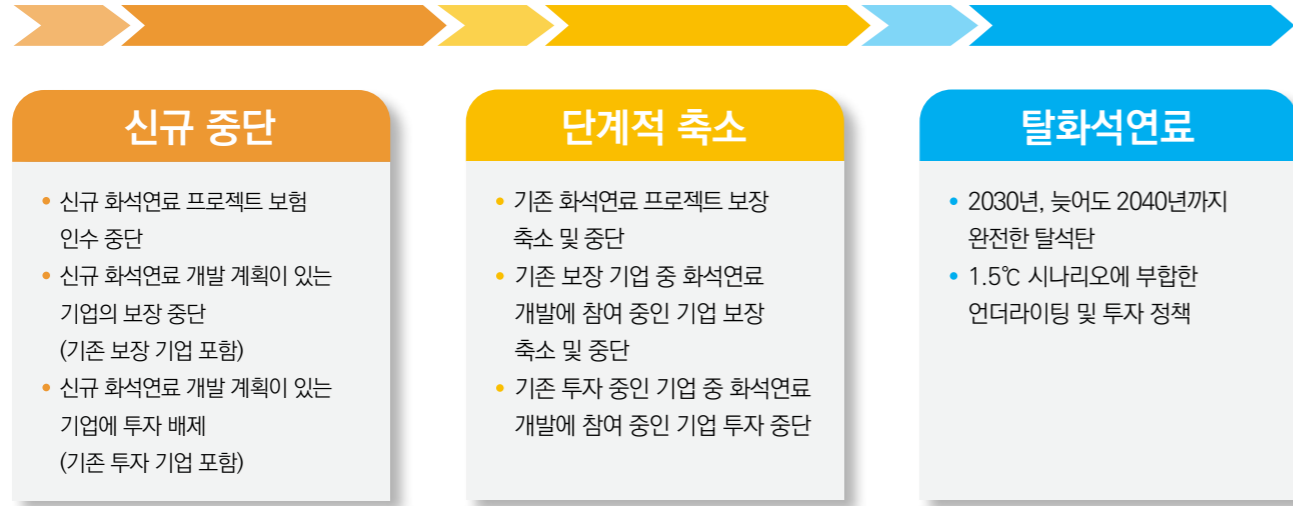


1. 신규 석탄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기업: 투자 중단 대상 기업에 신규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기업 포함.

1. 각 보험사의 지분투자 잔액이 해당 연도 0원인 경우 그래프에 표시하지 않았음.
2. 삼성화재해상보험 2019년 지분투자 평가 잔액은 확인 불가.
3. 코리안리재보험의 경우 2022년 11월 탈석탄금융 선언.

* 데이터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2022 금융기관 화석연료 금융지원 현황 전수조사

탈화석연료 Full Phase-Out



화석연료 단계적 축소 정책

기관별 정책 수준 및 시행 시점이 모두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1.5°C 온도 상승 제한을 목적으로 손해보험사가 탈화석연료 정책을 설정하고 시행하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은 양상이 된다. 특히나 탈석탄 정책이 2050년 1.5°C 온도 상승 제한에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완전한 탈석탄이 필요하다.' 따라서 탈석탄 정책은 신규 보험 인수 및 투자 중단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 보장 및 투자분에 대해 석탄 관련 자산을 0%로 만들기 위한 축소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정책은 물론 석탄 또한 완전한 탈화석연료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석탄 기존 보험 보장의 단계적 축소를 언급했으나 관련 공개 정책은 확인할 수 없다. 투자의 경우 2050 넷제로 목표 수립과 더불어 탈석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으나, 2040년까지의 완전한 탈석탄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 KB손해보험은 석탄 투자에 있어 2040년까지의 완전한 탈석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는 없었다.

손해보험사 활동에 대한 접근법: 기후 선언과 인게이지먼트

언더라이팅 활동 전반에 대한 접근법

접근법 문항을 통해 각 보험사가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험사업을 연계하는가와,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석연료 기업 대상으로 한 인게이지먼트 정책 여부를 확인한다.

응답한 손해보험사 가운데 해당 문항에서 점수를 획득한 곳은 없었다. 모든 보험사의 화석연료 정책이 신규 석탄 보험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험사업의 완전한 탈화석연료 계획을 수립한 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된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또는 화석연료 생산 감축 요구 정책을 시행 중인 보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활동에 대한 접근법

투자사업의 1.5°C 목표 연계 여부와, 목표 달성을 위한 화석연료 기업 대상 인게이지먼트 정책 여부를 확인한다. 단, 화석연료 투자 배제 정책이 적용되는 보험사의 자산 범위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롯데손해보험과 코리안리를 제외한 7개의 보험사가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일정 점수를 획득했다. 각 보험사가 투자 활동 접근법에서 획득한 점수는 투자 배제 정책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묻는 문항 응답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전부이다. 보험사의 투자 사업이 파리기후협정 1.5°C 목표와 부합하거나 화석연료 기업 대상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있는 보험사는 없었다.

접근법 문항에 대한 각 보험사의 응답을 통해 언더라이팅·투자 두 부문 모두 화석연료 정책이 신규 석탄 언더라이팅·투자 제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유 중인 보험 및 투자 자산에 대한 단계적 축소와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정책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1), Phasing Out Unabated Coal, 10p

* 참고자료: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 분류 기준
- [Global Coal Exit List](#) / [Global oil & gas exit list](#)

탈석탄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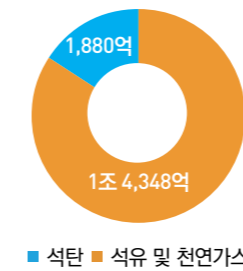
석유 및 천연가스 언더라이팅 정책 시행 보험사 (글로벌 vs 국내)

글로벌	국내
30개 중 19개	9개 중 1개

2022 글로벌 스코어카드를 통해 화석연료 언더라이팅·투자 제한 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0개의 글로벌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 가운데 25곳이 신규 석탄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언더라이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19개로 2021년대비 8개의 손해보험사가 추가되었다.¹

투자 부문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개의 손해보험사가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보다 7개가 추가된 19개의 손해보험사가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 배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¹ 글로벌 손해보험사의 언더라이팅·투자 제한 정책이 '석탄'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국내 화석연료 관련 지분투자 평가 잔액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손해보험사별 정책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9개의 손해보험사 모두 신규 석탄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의 경우 7개사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석유 및 천연가스 언더라이팅·투자 제한 정책은 석탄 정책 대비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개의 손해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석유 및 천연가스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해당 정책은 석탄 언더라이팅 제한 정책에 비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석탄 언더라이팅 정책이 석탄 프로젝트와 개발 계획이 있는 기업까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석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관련 프로젝트에만 정책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투자 부문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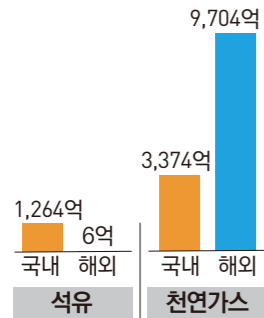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정책 부재의 영향은 투자액 규모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국내 9개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지분투자액은 석탄(1,880억)에 비해 석유 및 천연가스(1조4,348억) 투자 규모가 약 8배에 달했다.

1. Scorecard questionnaire – Summary Data

변화의 시작점



Figure 5.
석유 및 천연가스 지분 투자 상세



투자액 규모는 천연가스 1조 3,078억 원으로 전체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해외 천연가스 사업의 투자규모가 국내 대비 약 3배였다.

리스크(Risk)와 기회(Opportunity)

2021년 기준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석탄 비율은 45%, 석유 31%, 천연가스 24%이다.¹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즉, 석유 및 천연가스는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이 아닌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다. 그러나 각 보험사의 화석연료 정책은 '석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보험사 AXA의 ESG 총괄인 셀린 수브란(Celine Soubranne)은 지난 2021년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AXA가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에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²

“결국은 리스크 관리이다. 석유 및 천연가스는 석탄과 같이 좌초자산이 될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의 회사의 가용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좌초자산이 될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언더라이팅·투자 대상 기업의 화석연료 관련 매출 비중, 설비, 생산량 등을 지표로 배제 또는 유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유 중인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출구 전략(Phase-out: 단계적 축소)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대체재인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변환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 세계 에너지 및 기후 통계
2. 한겨레 2022.01.06 기사
- 접속일: 2023.03.06



